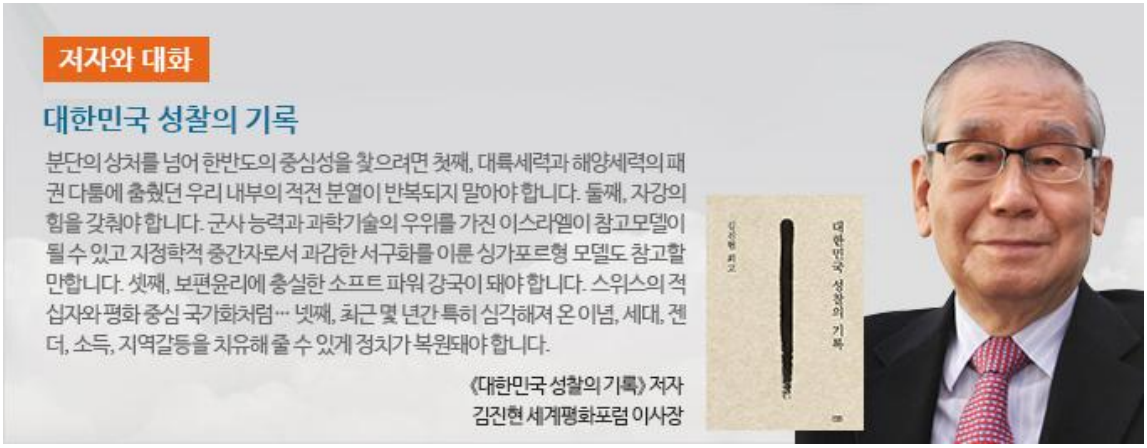


우리에게는 기록이 많은 듯하면서도 없다. 조선왕조실록 같은 세계적인 역사 기록물이 있는 반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사건 또는 그 현장의 구체적 기록은 의외로 많지 않다. 깨알 같은 기록으로 유명한 옆 나라 일본과 자주 비교되곤 한다. 기록의 부재는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사회에 대한 객관적이고 진지한 평가를 제약하거나 방해한다.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기록에는 관심조차 없고 그저 자기 입맛대로의 소설쓰기식 주장을 하는 엉터리들이 더 주목받는 사례까지 생겨났다. 기록의 부재에서 기인한 일그러진 왜곡은 객관성과 진지함의 결여로 이어진다. 진짜 교훈을 얻지 못하니 역사의 실수는 반복된다. 진실 따위는 관심 없다는 이른바 탈(脫)진실주의 언론관도 그 아류이다. 언론이 언론다운 것은 기록이 객관적이고,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불편한 진실. 그것이 기록의 참다운 의미이다. 만 86세의 원로 언론인 김진현 회고록은 그래서 반갑다. 회고록 제목도 《대한민국 성찰의 기록》이다. 객관적 사실로 회고하고, 성찰의 자세로 평가하겠다는 저자의 취지가 느껴진다. 제대로 된 교훈,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들기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방향성이 함축돼 있다. 그 기록을 더 많은 사람이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기록을 남기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원로 언론인 김진현과 마주했다. 만남은 2022년 7월 13일 프레스센터 관훈클럽 사무국에서 이루어졌다.

- 회고록 제목이 《대한민국 성찰의 기록》입니다. 성찰이라는 단어가 특이했습니다. 제목의 취지부터 설명해주시죠.

"대한민국은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945년 이후 독립한 약 150개 나라 중 '유일'하게 근대화에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고속, 초압축 성장 과정에서 발전, 근대와는 정반대 방향의 가치 전도와 퇴행이 동시에 생겨났습니다. '완전한 근대화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념 갈등은 더 격렬해졌고 세대, 지역, 젠더의 갈등까지 가세했습니다. 자유, 민주, 다원, 개방, 책임 사회로 발전되기 위해 필수적인 중간 조정기구들, 예를 들어 언론, 학교, 종교 단체의 역할은 축소돼 갔고 존경받는 엘리트는 소멸 수준이 됐습니다.

근대화되고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극단의 문제들이 생겨났고 국가적 사회 공동체의 위기를 만들었는가. 이 나라 발전 과정에 참여했던 지도자 엘리트들이 진솔하게 그 전후 맥락을 짚고, 당시의 상황 판단과 오늘의 결과를 연결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전통성 확립과 재정비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머리말에도 썼지만, 신현확 씨로부터 "4·19는 밖에서 알려진 것과 크게 다르다. 내가 진짜를 얘기하면 여러 사람 다친다"고 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면 더 진실에 가까운 4·19를 후세에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혁명이라고 불리는 다른 역사적 사건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역과 가짜 이념으로 신격화된 역대 대통령들에 대해서도 보다 '진실'에 가까운 총체적 재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성찰적으로 바라보고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입니다."

- 일제 강점기, 6·25, 산업화·민주화,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역사를 경험하셨습니다. '다생(多生) 세대'라고 표현하셨는데 시대별 성격과 시대정신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요?



"다섯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절대 가난과 절대 위험의 시대입니다. 조선의 유산과 일제 식민, 태평양 전쟁, 6·25 전쟁으로 상징되는 시대입니다. 이때는 죽지 않고 살아남는 생존 그 자체가 목표였던 시대죠. 둘째, 근대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에서부터 경제 성장, 민주화·국제화까지의 발전의 시대죠. 셋째, 혁명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쌀 자급을 이뤄낸 농업혁명에서 공업혁명, 정보화 디지털 혁명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정치적으로 4·19, 5·16, 5·18, 6·29 등이 모두 혁명이었고요. 넷째, 절대 가난과 절대 위험의 시대와 대비되는 자유, 휴머니즘의 전진 시대. 마지막으로 반민주화와 반진실의 역습시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대 발전을 이끌어왔던 가치와 이념 제도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문명사적 대혼란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유, 진보, 휴머니즘과는 다른 반근대화(反近代化), 풍요로부터의 대반동과 역설이 전개되고 있는 이 전환기에 어떻게 답을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젊은층이 회고록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언론인 김진현'의 삶을 연대기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

“나라 없는 시절에 태어나 자랐죠. 1941년부터 1945년까지는 일본말과 일본 글을 배웠던 일제 국민학교 식민지 시절. 1945년에서 1948년까지는 미 군정이었고요. 제 고향이 경기도 안성인데 1950년 6·25 직후 9월까지는 북한 인민군 통치 지역이었습니다. 1953년부터 서울에 정착해 살았고 인생의 대부분을 언론인으로 살았습니다. 언론인 외의 경력을 꼽으라면 정부 장관, 대한민국 건국 및 정통성 기념사업회 책임자, 교육자, NGO 활동가를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언론 밖에서의 경험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인지요?

“단연 서울시립대학 총장직이었습니다. 서울시립대의 도시과학연구대학으로서의 특성화, 도시과학대학과 대학원 설립, 교수 TO 배증과 예산 3배 첫해에 달성, 질적 양적 대학으로서의 발전, 서울지역 대학에서 국가적 그리고 국제대학으로의 비약…. 서울시립대 역사의 결정적 변곡점을 만든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국무총리와 공동 세계화추진위원장, 한국경제신문협회 회장 겸직으로 서울시립대학 업무를 쉽게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외환 위기만 아니었으면 훨씬 더 높은 질·양(質量) 양면의 도약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특히 학사, 학생 운영 면에서 새 기록을 남기고 떠난 게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물론 과학기술처 장관으로서 G7 프로젝트와 광폭외교도 있습니다만, 비(非)과학자라는 차별을 많이 받아 씁쓸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 책에 보면 중학교 때부터 신문기자가 되기로 뜻을 세웠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학 전공은 사회학을 선택했는데 이유가 있었는지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신문에는 다음 날 지역 행사를 미리 인쇄해 지면에 실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살았던 안성의 지국 사무실에서는 내일 또는 몇 시간 뒤에 계획된 행사를 미리 읽을 수 있었던 거죠. 이 행사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 것까지 인쇄돼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신문기자들은 앞을 예측하는 신통한 인물이자 비상한 능력의 소유자로 생각(착각)하게 된 거죠. 1953년에 고교를 졸업했는데 이때는 대학에 신문학과가 없었어요. 아마 십여 년 뒤에야 신문학과, 신문방송학과가 생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고3 때, 신문기자가 되려면 대학 어느 학과를 가야 하냐고 물으니 선생님들은 답을 모르셨어요. 마침 자형이 법대에서 변시민 교수의 사회학 강의에서 신문저널리즘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학과를 지망하게 됐습니다.”

- 기자를 하면서 롤 모델 같은 게 있으셨는지요? 회고록에는 월터 리프먼과 레이몽 아롱을 꿈꿨다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한국의 레이몽 아롱을 꿈꾼 것은 내가 1967년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발탁된 뒤였습니다. 해방 후 동아일보 기록으로는 최연소 논설위원이었습니다. 한국미래학회와 국

제 관련 학회, 특히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나 사상계와 교류하다 보니 언론계에서는 꽤 지성 언론인이라는 평가를 받은 셈이죠. 그래서 1968년 한국편집인협회가 주최한 <신문과 발전>이라는 주제의 제주 세미나에서 당시 32세로 제1 주제인 '경제개발과 신문의 역할'을 발표했습니다.

나는 일찍부터 레이몽 아롱, 월터 리프만 같은 지성 언론인을 꿈꾸었고 특히 드골 대통령이 아롱의 별세에 추념한 "프랑스 언론의 교수이며, 프랑스 아카데미의 저널리스트"라는 평가는 내가 이루고 싶은 딱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레스톤처럼 80살 넘어서도 칼럼을 계속 쓰고 싶었고요."



- 노박을 사상적 동지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신지요?

"마이클 노박은 종교철학자입니다. 자본주의를 종교 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학자인데 20세기 후반의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이었다고 평가합니다. 1981년 한국경제연구원 창설 책임을 맡고 연구원의 위치와 미래를 정립하는 데 고심을 했습니다. 결론은 첫째, 최초의 민간 연구소이자 전국경제인연합회라는 최고 재벌들이 만든 연구소로서 민간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연구소로 한다. 둘째, 민간기업 이익만 우선하지 않고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과 일치하는 연구를 병행하며 균형 있게 운영한다. 셋째, 한국 실정에 맞는 경제 근대화와 기업 발전이 무엇인가를 실체적으로 접근해보자. 넷째, 그러기 위하여 한국 기업인들에게 부족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념적, 철학적, 제도적 명제와 실체를 이해시킬 방법이 무엇일까를 골똘히 연구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화두를 풀기 위해 현대경제 사상가들을 뒤지다가 노박을 발견했습니다. 자유주의자이면서, 한 사회가 자유, 민주, 시장의 다원 개방체제로 발전 지속하려면 정부와 시민 사이에 있는 중간 조정기구(intermediate structure)가 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국가)와 시민(개인) 사이를 잇는 교회, 학교, 은행, 기업, 노조, 언론, NGO 같은 중간 기제들이 원칙을 지키며, 원숙하고 책임 있게 기능할 때 공동체의 자유와 진보를 지속할 수 있다는 통합적 사회접근론자였습니다. 그의 자본주의는 자본으로서의 자본주의라기보다 머리, 우두머리, 정신자본 이론, 시민사회 이론이었습니다. 시장 자유에 충실하되 경제 일원론적 접근을 넘어섰고 심지어 인권, 독재 문제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노박의 서울 방문은 그의 일생 중 최초의 아시아 방문이었으며, 그가 타고 온 KAL기 다음 비행기가 시베리아에서 폭파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방한의 의미가 더 컸습니다. 정주영 회장과는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고 자기 생전 처음으로 기업인으로부터 큰 대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미국 기업연구소(AEI)의 부소장으로, 대학교수로 있는 동안 워싱턴에 들를 때마다 만났고, 한국경제신문과 MBC의 신년 특집을 위해 인터뷰 대담도 했습니다. 6년 전 세상을 떴으나 후임인 AEI의 N. 에버슈타트와는 지금도 연락하고 지냅니다."

- 기자생활을 하면서 자기 나름의 특화된 분야 또는 선호하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등 여러 분야 중 '기자 김진현'의 전문분야를 꼽는다면 어디일까요?



"출발은 경제 기자였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었지만 견습 끝나고 첫 배치가 경제부였습니다. 경제에서도 대미 관계가 중요한 부흥부를 처음으로 출입하였습니다. 국제경제는 물론 1958~60년에는 아주 드물었던 국내 개최 국제대회를 취재하게 되었고요. 이어서 1962~63년도에 개발도상국 경제개발 계획과 정책을 배우기 위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대만, 일본, 푸에르토리코 등을 돌아보며 세계에 눈을 떴습니다. 선진국 원조기관인 IMF, World Bank, UN, 국제경제기구인 OECD, GATT를 시찰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국제경제에 관한 독보적 언론인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를 계기로 국제경제뿐 아니라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겸 국제분과위원장, 그 후 아시아 농업언론인협회 창립과 한국대표. 언론을 넘어 국제외교안보 연구 기관인 서울 국제포럼, 세종연구소, 코리아 파운데이션, 세계평화포럼 등의 창립책임자 또는 이사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언론인 칼럼니스트임을 정체성으로 하면서 경제와 미래 국제 분야에 깊이 참여한 다원적 언론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기자로서 가장 뿌듯했던 경험을 꼽는다면 무엇인지요?

"1966년, 6개월간 15개국을 발로 취재한 <코리안의 고동: 세계로 향하는 한국인 한국

상품> 기획입니다. 기간, 여비, 다양성에 있어 1960년대 한국 언론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해외 취재였고 경비도 1만 2000달러였습니다. 실제는 더 들었을 텐데 내 기록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예산을 할애해 준 김상만 동아일보 전무께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2개월 예정 해외 취재였으나 인기가 높아 4개월로 연장됐습니다. 해외 취재계획은 회고록에 나오는 대로 1964년 11월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계기로 수출 대표 지역 2~3개국을 출장 취재하는 계획이었는데 거부됐습니다. 취재계획이 좌절된 뒤 오히려 1년 가까이 노트 두 권이나 되는 더 큰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수출한 상품의 현지 소비 상황, 세계 선진·후진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한국 교포들 특히 음악, 미술, 태권도 등과 한국학 교육 실태 등 오늘의 K-POP 한류의 원류를 최초로 발견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언론의 한 장르를 창조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코리안의 고동 이후 우리나라 신문·방송들은 신년 특집 또는 창간·창사 특집 행사로 세계로 뻗는 한국 등을 특별기획 취재하는 관례가 생겼습니다.

그때 파리에서 만난 박병서 노인. 만주, 시베리아, 영국을 거쳐 파리의 아파트 꼭대기 탑 방에서 소리높여 부르시던 독립운동가. 1919년 김규식 선생 모시고 파리 강화회의 왔다가 처져있던 전영희 노인. 그 1930년대, 너무 고생스러워 자살을 생각했던 파리 공원의 의자까지 나를 데려가 조국 독립의 한을 토로했던 이야기. 싱가포르에서 만난 로이터 통신의 아시아 총국장 지미 한(Jimmy Han). 그는 아버지가 상하이 임시정부 요인으로 아버지 유지를 받들어 한국인으로 살기 위해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불편하다고 하더군요. 세계에 전혀 통하지 않던 대한민국 여권으로 국교가 없는 중국에 드나들려면 특별허가 받아야 하다 보니 통신사의 아시아 지국장으로 업무에 지장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잇는 애국심과 해외 지사들의 도덕심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며 대한민국을 지킨 것이라는 생각에 짠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코리안의 고동 취재는 코리안의 국제 진출과 함께 코리안의 근대 독립, 애국심의 원천도 탐색하는 참으로 보람 있는 기획 취재였습니다. 나를 성숙시킨 30대, 발로 뛰는 언론인 시절의 절정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부장을 거치지 않고 경제부 차장대우에서 1년 뒤 일약 동아일보 최연소 논설위원으로 발탁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 TK라는 단어를 신조어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착상이셨는지요? 요즘처럼 널리 쓰일 것으로 예상했는지요?

"시작은 단순한 표기의 문제였습니다. 대구·경북 출신이란 말을 계속 써야 하는데 너무 길고 밋밋해서 약자로 TK라 부르고자 사용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독립운동의 주류는 기호지방과 호남의 보수, 이북 크리스천 세력이었는데 5·16 이후 대구·경북권, 군부 출신이 권력의 중심에 장기간 있는 상황, 호남과의 지역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요약하려는 뜻도 있었습니다. TK라는 단어의 파문이 그렇게 클

줄은 저도 예상 못 했습니다. 그 칼럼이 '노태우 선생에게'라는 제목의 편지글 형식이었는데 TK 인맥과 손을 끊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독자들에게 결기 있는 칼럼으로 받아들여졌고, TK 인맥의 권력 독식에 대한 반감까지 가세하면서 일종의 정치 상징을 담은 약어로 확산된 것 같습니다. TK는 그 뒤 사전에 등재되는 신조어가 됐고 다른 지역도 비슷한 영어 이니셜로 부르는 관행이 생겨났죠."

- 1990년 기자를 하다가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책 내용으로는 자의가 아니라는 뉘앙스가 강하게 느껴졌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회고록에 그 과정을 상세히 기술했지만, '의외' '황당' '청천벽력'이란 표현으로도 모자랍니다. 전쟁, 혁명 같은 비상 상황도 아니고 평시에 평상적 업무에서 대한민국 국무위원, 장관 임명 역사에서 이렇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그것도 내 전문분야도 아닌 엉뚱한 직책, 생전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던 자리에 일방적으로 발령받는 것…. 아마 전무후무할 겁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동아일보 안의 오래된 가족 간 불화에서 시작됐습니다. 특히 회장 아드님 되시는 사장과의 불화와 집요한 DJ 편향 사설 요구로 사실상 동아일보 논설주간 퇴임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동아일보에 더는 있기 어렵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조선·중앙·한국일보 등 다른 (언론사의) 논설주간 자리는 모두 후배들이어서 후배 밀치고 갈 수도 없고…. 마침 개국을 앞둔 SBS의 해설위원장 자리를 놓고 최병렬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약 2개월 뒤 안면도 핵폐기물처리장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때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병렬, 경제수석이 김종인이었는데 노 대통령, 최병렬, 김종인 사이에서 '쿠킹'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방적 과학기술처 장관 임명의 속사정입니다. 남들은 장관 되었다면 기뻐서 함박웃음을 지었을 텐데 나는 동아일보 편집국, 논설실, 임원실에 떠나는 인사를 다니며 눈물을 흘렸으니…. 장관 임명되고 가기 싫어서, 친정에 머무르고 싶어 눈물을 흘린 사람, 나 말고 또 있을까요."

-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로부터 공직을 제안받았던 일이 순차적으로 기록돼 있

는 데요. 어떤 자리였나요?

"노태우 당선자 시절에는 문화공보부 장관, 그 뒤 환경부 장관을 제의받았습니다. 또 서울 강남을(乙) 국회의원 출마도 권유받았습니다. 제가 거절한 자리에 이태섭 박사가 갔죠. YS는 전국구 3번 자리를 제의했습니다. 제가 고사 의사를 밝혔더니 YS가 한동안 말을 못 하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는 "전국구 3번 자리를 거절하는 사람 처음 본데이…." DJ는 전국구든 지역구든 마음대로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 무렵 나는 '김진현 칼럼'으로, 또 뉴욕타임스에 칼럼을 쓴 유일한 한국 언론인으로서 지성 언론인의 독보적 지위를 누렸고 레이몽 아롱의 꿈이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유혹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죠."

- 회고록 안에 많은 사람과의 교류가 담겨 있습니다. 정치권, 경제계, 종교계 등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가장 인상 깊었거나 삶에 영향을 준 사람을 꼽는다면?

"첫째는 내 언론인의 꿈을 하루아침에 깨버린, 아이러니컬하게도 내 일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만든 동아일보 김병관 사장과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둘째는 나를 크게 인정해줬던 동아일보 김상만 회장과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장기영 한국일보 사장이고요. 셋째, 평생 동지 관계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은 이한빈, 김재철, 김상현, 김재익, 박세일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 문화일보 사장 때 김정일과 만난 얘기, 방북 비화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김정일은 어떤 사람이라고 느끼셨는지요?

"안에 갇힌 독불장군이자 폭군. 거리 곳곳에 자기 아버지, 아들 자랑 표어를 잔뜩 써 붙여 놓은 사이비 종교의 교주. 단군신화까지 조작하는 앞뒤 가리지 않는 사람. 꾀많은 거짓말쟁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 언론인으로서의 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듯하면서도 동아일보를 퇴사할 때와 문화일보 사장에서 물러날 때는 아쉬움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면 대한민국 '가족' 유형의 비극…. 그 비극의 유탄을 내가 직격으로 맞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들이 예외 없이 비극으로 끝을 맺는가. 왜 경제 권력자인 재벌의 가문들은 부자, 형제, 자매 사이에 집안 재산 싸움으로 법정을 드나드는가. 왜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 권력은 끝내 가족 이기주의와 가족 분열로 사회적 신뢰를 추락시키는가'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동아일보의 퇴사와 문화일보 사장 퇴임은 동아가문, 현대가문의 가족불화가 원인이고 저는 그 희

생양이었습니다. 동아의 부자 관계를, 현대의 가족 관계를 내 성격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다고 변명해봐야 소용없고, 시대적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당사자들도 모두 비극을 안고 갔으며 양심의 고통을 떨구기 어려웠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정말 모두 진실에 대한, 역사에 대한 허심탄회한 성찰, 용서, 화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 NGO 활동도 많이 하셨습니다. 계기는 어떤 것이었고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과기처 장관 재임 중 정부와 정부산하기관들의 행정, 예산, 집행과정의 모순을 많이 보면서 NGO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도 과기처는 규모나 직원들의 출신이 전형적 관료 부처와는 달랐는데 말이죠. 정부 전체의 적폐가 심한 것을 체험하고 장관 퇴임 후 바로 자원해서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에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이어서 김수환 추기경, 강원룡 목사, 서경석 목사와 더불어 다방면의 NGO, 북한 주민돕기, 환경, 평화, 바른사회, 바른경제, 선진화 관련 20여 개 NGO의 책임자 또는 공동대표로 일했습니다."

- 원로 기자로서 현재의 한국언론을 평가한다면? 최근의 언론 상황을 평가한다면?

"제가 언론을 떠날 때는 신문이 TV의 도전을 받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TV도 올드 미디어가 됐고 SNS, 유튜브, 디지털 플랫폼 등이 새로운 미디어로 변신했습니다.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서울시립대 총장 시절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정보 최고 지도자 회의에 참석하고 FOX뉴스 머독 회장이 정치 뉴스도 연예(entertainment)라고 말하고, FOX가 중국에 진출하면서 중국정치와 충돌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장사꾼, 흥행연예인의 언론관에 경악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25년 전 머독의 말대로 모든 뉴스, 더 나아가 국가 행사마저 연예화, 쇼화, 흥행화, 공작화 되어 가는 세상입니다. 연예화로부터 뉴스와 언론의 정도, 진실 보도, 공정언론, 사회 중간 조정기구로서 원칙 있는 소통과 통합을 이루는 본래 기능의 언론을 새 세상 새 미디어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척, 창조할 것인지…. 한국뿐 아니라 세계 자유 책임 언론의 문명사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최고의 취재편집 출신 중견 언론인 연구모임인 관훈클럽에서 이 역사적 과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관훈클럽만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늙었지만, 함께 참여해 헌신할 각오도 돼 있습니다."

- 회고록 본래의 주제로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회고록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대한민국 미래의 방향성은 어떻게 설정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대한민국은 현재 건국 후 최고의 분열, 극단의 갈등, 끓는 증오로 차 있습니다. 국립

묘지조차 동작동 국립현충원, 수유리 4·19 민주화 묘원, 광주 5·18 국립묘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갈등, 단절의 상징처럼 말이죠. 건국세력, 6·25전쟁 국가 수호세력, 경제발전 세력, 군·관·재 복합세력, 민주화 세력, 586 운동권 세력, 촛불 세력, 태극기 세력…. 모두 이 분열과 갈등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보편윤리 휴머니즘에 기초한 사랑, 인의, 자비의 기본으로 돌아가 모두 반성, 참회, 배상, 사면, 화해, 나눔의 일대 씻김굿이 필요합니다. 재활, 부활, 개벽을 여는 기성세대 탈골 승화의 큰 역사 문명사적 전환의 일대 씻김굿이 필요한 거지요. 분단의 상처만을 반추하고 증오를 이용하고 부추기는 반동을 넘어 한반도의 중심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패권 다툼에 춤췄던 우리 내부의 적전 분열이 반복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자강의 힘을 갖춰야 합니다. 군사 능력과 과학기술의 우위를 가진 이스라엘이 참고모델이 될 수 있고 지정학적 중간자로서 과감한 서구화를 이룬 싱가포르형 모델도 참고할 만합니다. 셋째, 보편윤리에 충실한 소프트 파워 강국이 돼야 합니다. 스위스의 적십자와 평화 중심 국가화처럼…. 넷째, 최근 몇 년간 특히 심각해져 온 이념, 세대, 젠더, 소득, 지역갈등을 치유해 줄 수 있게 정치가 복원돼야 합니다. LIMEN이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출입문이라는 시작의 뜻과 무덤이라는 마지막의 뜻이 동시에 담긴 단어입니다. 성공은 바람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자성, 노력, 희생이 겹쳐져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과거와 현재의 성공과 실패를 복합적으로 쉼 없이 되새김질해 나가자는 것, 그런 기초가 쌓이고 쌓일 때 궁극의 기로에서 개벽 부활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 미국 하버드대 니만 펠로 과정 수료(경제개발 전공)
■ 고려대 명예 경제학 박사, 광운대 명예 공학 박사
■ 동아일보 논설실장, 논설주간
■ 과학기술처 장관
■ 한국경제신문 회장
■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 대통령통일고문회의 고문
■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이사장
■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이사장
■ 문화일보 사장·회장
■ 관훈클럽 15대 총무(1968)
■ 관훈클럽정신영기금 5대 이사장(1989)
■ 저서: <한국주식회사>(한샘문화사) 외 다수
■ 역서: <방관자의 모험(피터 드러커)> 외 다수
■ 이메일 : jinhkim36@naver.com

▣ 방문신 (SBS문화재단 사무처장)

■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 SBS 도쿄 특파원,
정치부장, 국제부장
보도국장, 논설위원

■ 관훈클럽 66대 총무(2019)

■ 관훈클럽 동북아연구회장

■ 이메일 : bang@sbs.co.kr